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 (02)721-9861

metroseoul.co.kr

metro®

Life

제6044호 2026년 11월 27일 금요일



스타벅스
'K-헤리티지' 승부수
"내년 질적성장 원년"
L1

'뇌 건강'
新 패러다임
조기진단 방점
L2





자연의 숨결이 닿는 곳 '계절의 멋' 누리는 일상

아파트의 미학(美學)

'신검단중앙역 센트레빌'

검단신도시 내 1224가구 대단지
교통·교육·생활 인프라 갖춰

잔디광장·티하우스·수경 조화
나무 향기 가득한 데크 산책길
단지 곳곳 여유로운 쉼터 마련

사계절 풍경 담은 테마정원 조성
어린이 자연체험 채소원 눈길
세대별 특성 살린 맞춤 운동시설

인천지하철 1호선 신검단중앙역에서 약 15분을 걸으면 '신검단중앙역 센트레빌'에 닿는다. 동부건설이 시공한 이 단지는 인천 검단신도시 AA21블록에 들어선 지상 최고 20층, 13개 동, 1224가구 규모의 공공분양 아파트다. 전용면적은 74㎡와 84㎡로 구성됐다.

단지 주변에는 인천검단나래유치원과 인천신검단초등학교, 인천검단가온중학교가 자리한다. 인근 고등학교는 내년 개교를 앞두고 있다. 동쪽으로는 고인돌공원과 근린공원 등 녹지가 이어지고, 주변에 상업시설도 들어서 있다. 신검단중앙역 개통으로 철도 접근성도 높아졌다.

단지 안에는 피트니스시설과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등 커뮤니티를 갖췄다. 안쪽으로 들어서면 나무 향이 스며든 정원이 펼쳐진다.

신검단중앙역 센트레빌 단지의 중심에는 '블루심포니 플라자'가 있다. 잔디광장 너머로 대형 티하우스가 보이고, 주변에는 경관수목과 수경시설이 어우러져 있다. 광장 주변의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어 풍경을 다채롭게 한다. 벤치와 데크 위에 내려앉은 낙엽은 늦가을의 정취를 더한다. 데크로드에 발을 딛으면 '탁탁' 하는 소리가 난다. 나무를 눈으로 보고 발로 밟으며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중앙 광장을 둘러싼 갈색 데크와 나무 의자, 티하우스의 목재 마감은 단지 곳곳에서 이어진다.

광장과 맞닿은 '프레쉬데크로드'에는 걷다가 잠시 머물 수 있는 넓은 휴식 공간이 마련됐다. 한 사람씩 앉는 나무 의자 네 개를 두 개씩 짝지어 놓았다. 이곳에 앉으면 티하우스와 놀이터, 조형물 등을 볼 수 있다. 광장에서 이어지는 산책길을 따라가면 나무 사이에 놓인 데크 쉼터를 차례로 만난다. '핀오크레스트가든'에는 흔들의자도 마련돼 있다.

티하우스 안팎에도 나무의 따뜻함이 이어진다. 안에는 원형 의자와 넓은 바 테이블, 펜던트 조명을 두고, 바깥쪽에는 햇빛을 가릴 수 있는 차양을 설치했다. 창 너머로 데크길이 보인다.

정원 곳곳에는 자연과 사람의 관계를 담은 조형물이 놓였다. '바람, 숲, 그리고 이슬'은 바람과 이슬을 소재로 생명력 있는 자연을 형상화했다.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 생명의 근원인 자연의 위대함을 표현했다.

'아름다운 동행'은 두 갈래의 부드러운 곡선을 반복해 뫼비우스띠 처럼 이어지는 형태다. 자연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의미를 담았다. 정원에 놓인 두 작품은 단지의 녹지를 감상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일상을 실감하게 한다.

나무 사이로 이어지는 산책길 옆에는 높이와 모양이 다른 철봉 등 다양한 운동시설을 배치했다. 걷기 코스와 달리기 코스를 색으로 구분해 놓은 트랙이 눈에 띈다. 입주민은 단지 안에서 가볍게 산책하거나 정원을 보며 달릴 수 있다. 경로당 앞에는 시니어 운동시설도 마련했다. 이곳 운동기구에도 목재를 활용해 주변 데크와 분위기를 맞췄다.

신검단중앙역 센트레빌 단지의 높은 쪽으로 올라가면 분위기가 한 번 더 바뀐다. '일상의 무늬'라는 이름의 정원이다. 포시즌가든과 피크닉마당, 물소리정원, 단풍나무숲 등 성격이 다른 공간이 산책길로 이어진다.

일상의 무늬 정원을 채운 노란 잎과 붉은 단풍은 유난히 선명했다. 넓은 중앙 잔디마당 너머로는 물든 동산이 보였다. 은행잎이 쌓인 숲길을 지나면 하얀 디딤돌과 물길, 쉼터가 차례로 나타난다.

쉼터 역시 정원을 보는 방식을 바꿔 놓는다. 둥근 지붕 가운데를 뚫어 하늘과 단풍을 올려다볼 수 있게 했고, 나무 데크 위에는 밖을 향해 앉는 바 테이블을 놓았다. 지붕과 기둥, 의자와 테이블이 하나의 곡선 공간을 이루며 머무는 자리 자체가 조경의 일부가 된다.

아이들을 위한 공간도 눈에 띈다. 어린이집 옆 '채소원'은 단지 어린이들이 자연을 공부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정원이다. 낮은 텃밭이 길을 따라 놓여 있고, 뒤편에는 작은 쉼터와 놀이터가 이어진다. 집 가까운 조경 공간을 통해 아이들이 식물이 자라는 과정을 살피고 생명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했다.

/성채리 기자
cr56@metroseoul.co.kr





① ④ 숲 산책길
② 조형물 '아름다운 동행'
③ 달리기·걷기 트랙

